

2024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

(‘24.3.25., 금융위원회)

1. 추진배경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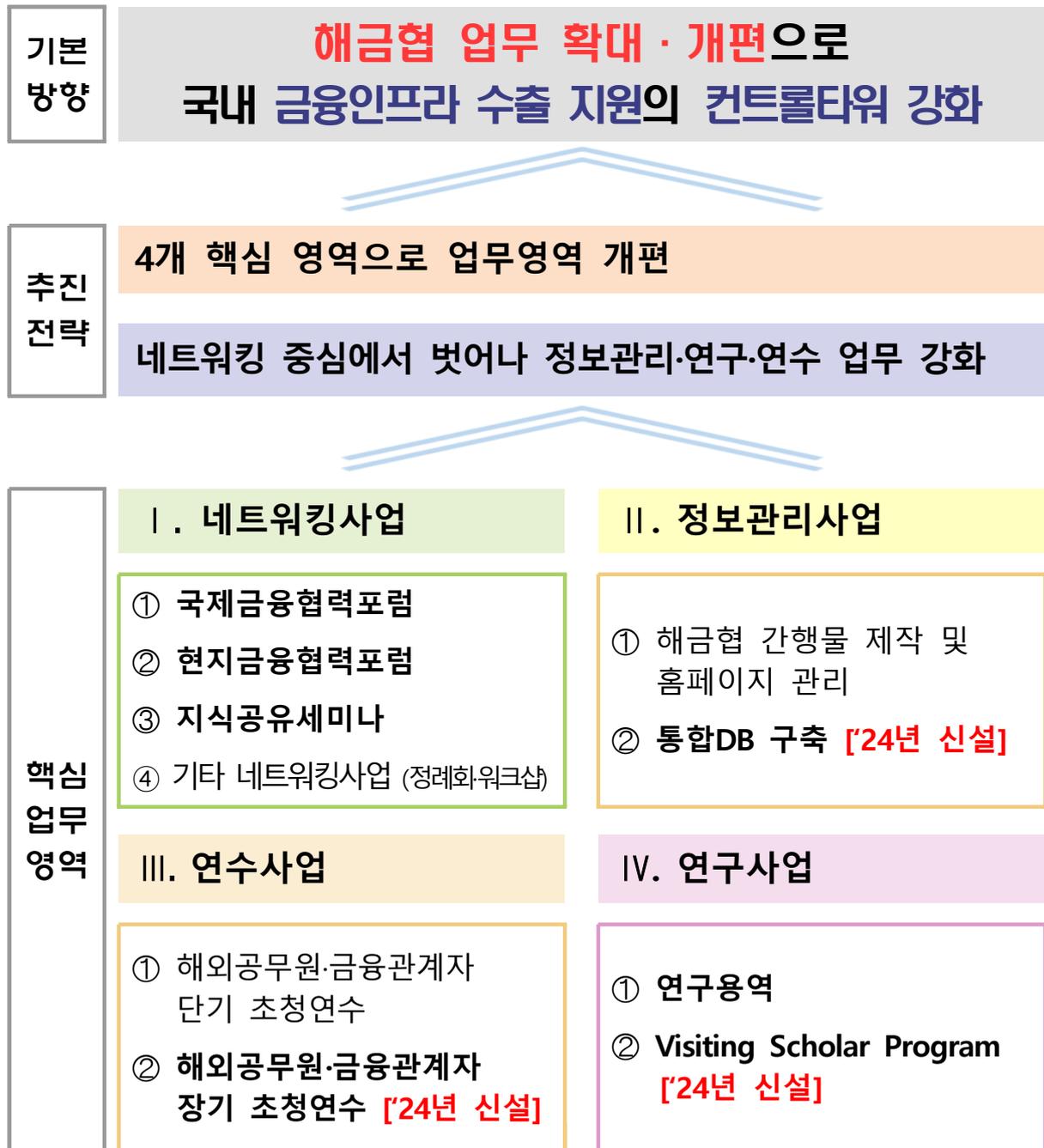
- 해외금융협력협의회(이하 ‘해금협’)는 ‘13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,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출범
 - 공공·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*으로 구성된 협의체로, 금융연구원에서 운영을 담당(센터장 1명 포함 6명)
 - * 민간 금융기관 11개(금융결제원, 보안원, 보험개발원, 코스콤, 거래소, 한국증권금융, 신정원, KCB, NICE평가정보, SGI서울보증, 금융연), 공공 금융기관 9개(기보, 신보, 예보, 예결원, 캠코, 주금공, 기은, 산은, 신복위), 금융협회 5개(은행연, 금투, 생보, 손보, 여신)
 - 그간 국내외 포럼 개최 및 초청연수 진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, 최근 신흥국의 국내 금융인프라에 대한 관심 및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역할 확대 필요성 제기
- 해금협이 보다 체계적·총괄적으로 금융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금협 발전방안 연구용역(금융연, ‘23.8월)을 진행
 - 동 과정에서 회원기관들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 수요 및 희망 지원분야 등 의견을 수렴
 - 특히, 해외진출이 활발한 금융인프라기관들*은 해금협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외진출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
 - *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중심의 해금협이 전문가 파견제도 운영, 해외사업 컨트롤타워 수행 등의 금융특화 역할 수행 필요(‘23.4월, 예탁결제원 등)
- ➔ 연구용역 결과 및 해금협 내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해금협이 국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및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및 역할 확대방안 마련

2. 해금협 기능 강화방안

◆ 해금협이 국내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4개의 영역*으로 업무영역 개편

* 네트워킹사업, 정보관리사업, 연수사업, 연구사업

- 국내외 포럼 등 네트워킹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관리사업 강화, 연수 및 연구사업 내실화 등 역할 및 업무영역을 확대



※ 추가로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 지원 사업 시행 예정

- **(네트워킹)** 해외진출 주요국 고위공무원·금융전문가와 회원사 간 금융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기회 확대
 - 그간 연 1회 개최된 현지 금융협력포럼을 분과별·지역별 그룹화하여 구체적 주제로 개최하여 후속 협력사업과 연계 강화
 - 해금협 사업활동을 통한 해외 협력국의 고위급 및 실무급 인력풀 조성 및 관리, 추후 해외파견제도(해금협 해외데스크) 추진
- **(정보관리)** 협력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가능한 통합DB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입력·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
 - 금융부문 ODA 사업(KSP, EDCF, KOICA 등)의 실적 및 수요 관리, 국가별·업권별 해외진출 애로사항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
- **(연수사업)** 네트워킹 성격의 단기(3~4일) 초청연수 중심에서 전문 강사 그룹 구축,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대
 - 분야별 실무지식 장기 연수 프로그램 신설 프로그램 수료 연수단에게 추후 다양한 해금협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
 - * 장기 연수는 소규모의 협력국 고위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하는 단기 연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실무자급 공무원을 초청
 - 단기 초청연수는 일정 중 금융협력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의 금융제도와 규제, 인허가 현황, 사업 경험 등에 대한 정보 공유
- **(연구사업)** 협력국 관계자의 연구 참여 장려 및 파트너십으로 연계
 - 해외협력국의 정책당국 실무자를 초빙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**Visiting Scholar Program*** 운영, 추후 정책자문 사업으로 연계(연2회)
 - * '24년 인니 OJK 대상으로 우선 시행, 예산 확보 후 베트남 등 확대시행 추진

3. 2024년도 해금협 주요 사업 계획

□ 네트워킹사업 : 네트워킹 기회의 확대

○ 제9회 국제금융협력포럼* 개최 (I. ①)

* 해금협과 금융위가 2014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 중으로, 글로벌 금융 현황을 논의하고 해외참가자에게 회원기관 방문 및 협력사업 발굴의 기회 제공

- 12월 중 해금협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파트너기관의 담당자 2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진행

○ 현지금융협력포럼* 2회 개최 (I. ②)

* 해금협과 해외협력 파트너기관이 해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, 현지 금융시장, 제도, 정책 학습 및 해외사업 파트너 간 네트워크 강화

- 그간 연 1회 개최했으나, 올해는 분과(선진국·신흥국)를 나누고 회원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총 2회 개최 결정

- (선진국) 영국에서 6월 중 개최 (잠정, UK Finance와 협력)

- (신흥국) 베트남에서 10월 중 개최 (베트남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과 협력)

○ 지식공유세미나* 개최 (I. ③)

* 해금협이 국제기구·다자개발은행·글로벌 씽크탱크 등과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로, 한국의 우수 금융인프라 및 관련 정책과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비즈니스모델 등 홍보

- 영국 현지포럼의 후속 사업으로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 검토 중

□ 정보관리사업 : 회원기관 간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기능 강화

○ 통합DB 구축 (II. ②)

- 기관별로 연락망 공개 범위 논의 및 기초자료 협조 요청

- 기초 프로그램 설계 등 DB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 착수 (최종 도입은 25년도 이후 예상)

□ 연수사업 : 연수 프로그램의 다변화

○ 장기 초청연수 도입 (Ⅲ. ②)

- 라오스, 태국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 대상으로 실무자급 공무원을 10일 이상 초청하여 업권별 실무 연수 진행
- 금융인프라 및 자본시장 관련 주제로 연수 프로그램 진행 후, 수료 연수단을 CIFIC(해금협) Alumni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해금협과 협력 도모 예정

□ 연구사업 : 회원기관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 조성

○ ASEAN 동향 파악 연구용역 추진 (IV. ①)

- ASEAN 전체 국가의 최신 경제·금융 현황 및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현황, 해당국의 금융정책 여건 및 관심 분야 등 분석 예정

○ Visiting Scholar Program 신설 (IV. ②)

-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(OJK)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빙하여 시범적으로 공동연구 진행 예정
- 4월 이후 공동연구주제 협의 예정으로, 양국의 관심사 및 향후 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주제 선정

'24년도 해금협 인력보강 · 예산확보 현황

- **인력보강** : ① 네트워킹 및 연수, ② 연구 및 정보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2개 팀을 신설하여 인력 4명*(’24. 2명, ’25. 이후 2명) 단계적 확충
* ’24년 초 팀 신설 및 5명에서 6명으로 인력 확충 완료, 추후 9명까지 보강 계획
- **예산확보** : 사업예산 부족을 고려하여 연회비를 인상하였으나(5천만 원), 코로나 시기 불용액을 집행한 ’23년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
➡ 추후 기능 강화 및 신규 사업 신설을 위해 단계적 인상 필요

4. 기대효과

- (단기) 국내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해금협 역할 명확화
 - 인력·예산의 단계적 확충을 바탕으로 4개 업무영역(네트워킹·정보관리·연수·연구)의 공고화 및 업무영역 간 다각적 연계* 기대
 - * 예) (네트워킹 - 연수) 포럼·세미나 등을 기회로 연수 프로그램 홍보·모집 활성화 (연구 - 정보관리) 연구사업 결과 DB에 축적하여 회원기관 지원에 지속 활용
 -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부문 해외 협력사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능적 발전 기대
- (장기) 해금협을 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원활한 해외 진출 구조를 조성하여 금융 수출* 증가에 기여
 - *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출 대비 금융서비스 수출 비중은 3.6%로, OECD 평균(11.9%)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(23. OECD)
 - 해금협 사업 영역의 지속적 확장 및 국내외 협력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금융 수출 역량의 제고 기대